

위전절제술 후 발생한 reactive hypoglycemia를  $\alpha$ -Glucosidase inhibitor로 치료한 1예

성균관대의대 강북삼성병원 내과 이호철, 정현식, 정수석, 이승세

위절제술이나 미주신경절제술 후 생기는 reactive hypoglycemia는 음식물(특히 탄수화물)의 빠른 소장 내로의 진행과, 소화와 흡수로 인하여 인슐린 분비가 급속하게 과다해져 식후 2-3시간 후 생기는 저혈당을 말한다. Reactive hypoglycemia는 고식적인 저혈당 치료에는 잘 반응하지 않고, somatostatin analogue(octreotide)와  $\alpha$ -Glucosidase inhibitor가 치료제로 알려져 있고, octreotide injection은 침습적이고, 가격이 비싸  $\alpha$ -Glucosidase inhibitor가 선호되고 있는 편이다. 저자들은 위전절제술 후 발생한 reactive hypoglycemia를  $\alpha$ -glucosidase로 치료한 1예를 경험하여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40세 남자 환자는 4년 전 위암으로 위전절제술을 시행 받았고 2년 전부터 저혈당 증상이 발생되어 치료받아오다가 최근 발생빈도와 정도가 심해져 내원 하였다. 과다한 음주력은 없었고 간과 신장기능 검사는 정상이었으며 HbA1c는 5.3%이었다. 위내시경상 위암재발의 소견은 없었고 복부 CT상 췌장종양의 증거는 보이지 않았다. Anti islet cell Ab와 Anti GAD Ab는 정상 level이었고 100g OGTT상 1hr시 혈당은 275mg/dl, insulin은 305uIU/ml(NL: FB 2-25uIU/ml)로 급격히 상승하였고 3hr시 혈당은 26mg/dl, insulin은 18.4uIU/ml로 급감하였다. Gastric emptying time 측정 시 소장 내로의 급속한 진행을 확인할 수 있었고,  $\alpha$ -glucosidase inhibitor (Voglibose 1.2mg) 투여 후 저혈당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외래에서 경과 관찰 중이다.

STI571 투여로 호전 경과를 보이는 재발성 불응성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1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윤경원\*, 이재중, 조상희, 황호인, 김여경, 양태영, 박형천, 정익주, 김형준

배경: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GIST)는 위장관의 결체조직 전구 세포에서 발생하는 중간엽 종양 중의 하나로 대부분 위나 소장 등에서 발견되며, 병인으로 tyrosine kinase 활성도를 지닌 성장 인자 수용체인 c-kit의 돌연변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절제가 불가능하거나 전이성 GIST는 항암요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치명적인 경과를 보인다. 최근 tyrosine kinase의 효소 활성도를 선택적으로 억제시키는 phenylaminopyrimidine의 유도체인 STI571 (Glivec®)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 뿐만 아니라 고형암인 GIST에도 탁월한 치료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연구자들은 항암화학요법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재발성 GIST 환자에 STI571을 투여 중에 있으며, 치료중 급속히 호전되는 경과를 보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54세 남자 환자로 2년전 상복부 불쾌감 및 복부 종괴가 촉진되어 본원에 내원하였다. 복부 CT 및 조직 생검상 소장의 GIST로 진단되어, 종괴를 포함한 부분적인 공장 절제술 및 우측 대장 절제술을 시행받았다. 내원 1-2개월 전부터 상기의 증상이 다시 발생하였으며, 복부 CT에서 간과 복강내에 다발성(간 종괴: 2.9 x 2.0 cm, 복강내 종괴: 3.3 x 3.3 cm)으로 재발된 소견을 보였다. 환자는 Ifosfamide (1.5 g/m<sup>2</sup>/일, D1-D3), etoposide (100 mg/m<sup>2</sup>/일, D1-D3) 및 cisplatin (20 mg/m<sup>2</sup>/일, D1-D3)을 병합한 항암요법을 2주기 시행받았으나 종괴는 더욱 증가(간 종괴: 5.0 x 4.0 cm, 복강내 종괴: 5.0 x 4.6 cm)하여 항암요법을 중지하였다. 그후 STI571의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환자는 매일 400 mg씩 경구 투여를 시작하였으며, 투여 2주째 상복부 불쾌감 등의 증상은 현저히 호전되었고, 이때 시행한 복부 CT에서 종양의 크기는 현저히 감소된 소견(간 종괴: 4.0 x 3.0 cm, 복강내 종괴: 4.3 x 3.6 cm)을 보였으며, STI571 투여에 따른 치료 독성은 보이지 않았다. 환자는 STI571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면서 외래 추적 중이다.